



'83 하계 양계강습회 및 요리강습회 개최

-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도청소재지 -

본회는 83년도 하계순회 양계기술강습회 및 요리강습회를 8월 1일부터 5일까지 4개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본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양계기술의 정보제공, 양계인 상호친목과 융화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쇠고기에서 닭고기로의 육류소비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대중조리법을 보급하여 소비증대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습회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양계기술강습회

- 8월 1일 14:00 전남 광주시 카톨릭센터
- 8월 2일 14:00 대구시 축협회의실
- 8월 3일 14:00 부산시 온천예식장
- 8월 4일 14:00 제주시 상공회의소 강당

• 요리강습회

- 8월 1일 14:00 전남 광주시 여성회관
- 8월 2일 14:00 전북 전주시 여성회관
- 8월 3일 14:00 충남 대전시 부라더 백화점 3층 왕준연요리학원
- 8월 4일 14:00 대구시 중구 공평동 서봉순요리학원

무허가축사양성화

과태료를 인하 검토중

- 국회사무처 본회에 회신 -

본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축사과태료율 인하건의」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는 「축사의 재산가치나 농가 소득 증대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국에서도 이점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또 민정당 민원부에서도 「관계기관에 축사과태료율 인하조치를 강구토록 촉구중」이라는 회신이 와 관계부서에서 무허가축사양성화 과태료율 인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본회는 과태료율 인하를 위해 건설부, 국회, 각 정당에 건의서를 내고 본회 임원들이 관계요로를 방문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일원의 비닐하우스 간이계사 철거에 대해 본회는 경기도지사에 △간이계사 정식건물 또는 구축물인정 △산림훼손절차 간소화 △미관상 철거 부득이한 곳은 군·도·국유림 알선 등 간이계사 철거대책건의를 내 바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가능한한 임대, 불하, 등을 알선토록 시장, 군수에게 조치한 바 있다는 회신이 왔다.

일본 식조협회

군마현지부장 제주지부 방문



△ 감사패를 전달하는 세끼네 지부장

지난 79년에 본회 제주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일본 식조협회 군마현지부 세끼네(關根晟) 지부장이 7월 4일 제주지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군마현지부 창설20주년을 기념으로 일본식조협회가 제주지부에 주는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박3일 간의 방문중 군마현지부장단과 제주지부 임원들은 양국 양계산업의 전망 등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방문단은 7월 16일 출국했다.

'84 양계관계사업 지원요청

- GP 센타 설치 등

사업확장, 농수산부에 -

본회는 사업의 대폭적인 확장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부에 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계관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의 양계산업은 각종 통계자료의

불비, 集卵 및 도계처리 가공시설의 부족, 유통 소비구조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안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계산업 안정화 및 선진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회가 관련업체와의 협조하에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농수산부에 지원의뢰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속사업

- 양계기반조사 사업
- 닭능력검정소 시설
- 계군혈청검사 사업
- 도계처리·가공 시설
- 국산종계개량 사업
- 소비촉진 홍보사업

○ 신규사업

- 조사사업
- 계란 GP 센타 설치
- 브로일러제열화 기반조성
- 닭고기·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사 교육
- 요리경진대회
- SPF 사업
- 닭고기 비축창고 및 냉동차량 설비
- 제육가공공장 시설

닭고기 소분포장방법 세미나 개최예정

본회는 지난 7월 11일 농수산부에서 개최된 각도 축정과장 회의에서 돼지고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포장육 생산업체에 일정량의 돼지고기를 포장판매토록 지시되었으나 토의과정중 닭고기소비촉진 및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닭고기도 포장판매토록 결의됨에 따라 각시도에 닭고기포장육 공급에 협조해 줄것을 공문을 통해 당부했다.

이에 수입쇠고기 포장생산업체에서는 수입쇠고기 포장판매 시 전체물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포장판매하게 됨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닭고기를 소분포장하는 방법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본회는 서울시와 함께 8월 하순 닭고기 소분포장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닭고기의 카트미트방법, 소분포장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인데, 육계생산자, 닭고기 처리업체 등의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육계 생산자 월례회의 개최

- 금년가을 일본양계산업 시찰을 결의 -

7월 육계생산자 월례회의가 7월 27일(수) 오후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최 정옥 박사가 뉴캐슬(ND) 및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에 대한 방역 대책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예방접종의 시기와 회수를 강조하였으며, 항문접종의 효율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육계 생산자회의에서는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를 통해 초생추가가격은 유동적이고 입추가 주춤한 상태이고, 닭값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부지역의 비닐(파이프) 하우스 철거현황에 관하여 지역별 실정을 서로 보고하고 현실성 있는 건의 등을 당국에 계속 반영키로 하였다.

또 회의에서는 육계산업의 조기근대화를 목표로 한 도계장의 확대시설 및 계열화 추진을 위하여 선진시설을 갖춘 일본육계산업을 금년 가을 시찰키로 원칙을 세우고 희망자는 다음 월례회 때까지 신청키로 하였다.

김일로 전 축협회장에게 감사패전달

본회를 위시한 대한양돈협회, 낙농비육협회, 종축개량협회등 3개 생산자단체는 지난 7월 28일 축협중앙회 김일로 전회장에게 재임중 축산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계군혈청검사 성공리에 진행중

- 예방의학적차원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 -

각 양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혈청검사로 계군의 건강상태를 역학적, 임상적으로 추시하여 질병의 방제,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닭의 생산성 제고,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닭 혈청검사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7월초부터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는 본사업은 신청 양계장에 월 1회 이상 출장하여 계군의 혈청을 뽑아 혈청 항체 검사, 계군의 저항성 검사, 병성감정 및 약제내

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농장에 따라서는 축주가 모르고 있던 질병이 발견되어 조기에 예방조치를 하는가 하면 질병에 따라 백신의 필요성이 없는 계군이 발견되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절약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실시농장에서는 약제의 선별 및 적기 투약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예방약의 효능평가로 질병의 사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본회는 당초 계획보다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난가고시 현실화하기로 결정 -

제 7 회 채란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7 월 15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가축위생연구소 최정옥박사는 「ND 및 ILT 방역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뉴캐슬병의 발생과 방역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나서, 결국 예방접종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ILT에 관해서도 언급,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어 협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황인옥전무는 무

허가축사 과태료율 인하를 위한 국회방문과 계군혈청검사 사업, 검정소설치 문제, 순회 양계강습회 및 요리강습회, 양계인 간담회 등에 관해 그 준비 및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수행된 이날 회의의 토의안건으로는 난가지조 결과 가격고시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먼저 가고시제와 실제거래가격고시의 문제에 있어 운반과정시 파란, 운송비 등 생산자와 상인간의 가격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현행 2원의 가고시제를 계속 유지하되 관계기관을 설득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여러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최근들어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에 가격고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협회의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가격고시에는 너무나 혼란이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자보다는 상인쪽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서 새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고시제를 폐지하고 다음 난가 고시부터 실제거래가격으로 표시
- 채란분과위원장, 경기양계협동조합장이 난가고시위원이 되어 난가고시
- 각 지역단위별로 1명씩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난가고시에 의견 참작
- 자문위원 : 최정삼(천호동), 허돈(인천), 최영식(동두천), 강서호(서부)

양계분야 정부지원요청사업 신청

- 내년도 민간사업중 정부지원 필요사업 -

본회는 내년도 양계분야 민간사업중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1984년 정부예산에 반영키 위해 회원중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음 서식에 의거 7 월 말일까지 보고를 받았다.



◎본회 인사◎

〈서식〉

사업명	총소요액	재 원		사업개요
		자체자금	정부지원자금(용자)	

〈유의사항〉

- 사업명은 도계장, 계란 가공공장, G.P 센터 등등
- 용자금 지원비율은 70% 이하이며 자체자금 30%로 담보물건이 있어야 함

○본회 이상윤희회장 해외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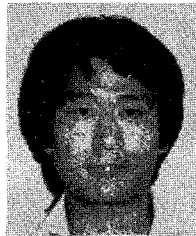
본회 이상윤희회장은 지난 6월 28일 출국하여 일본 계육가공시설을 둘러본 후 7월 3일 귀국했다.

7월 회장단회의 개최



본회 제 7차 회장단회의가 이상윤희회장, 신흥종·박준영부회장 및 본회 집행부 전무,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본안건 협의에 들어간 이날 회의에서는 ▲하계순회 양계강습회 및 요리강습회 개최 ▲자문위원 및 본회임원 연석간담회 개최 ▲AAAP 찬조금 염출 ▲종계수입추천 수수료징수 ▲종계수입추천에 따른 추천물량 신청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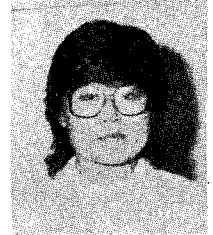
(윤영수)



(조동인)



(권옥자)



(박경애)

본회는 그동안 사무국에 근무하던 한용균씨가 사직함에 따라 후임으로 윤영수씨를 특채하였다.

또한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 아래 본회가 주관하여 벌이고 있는 계군혈청검사사업(1차년도 130만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7월 11일부로 수의사 1명과 검사 여직원 2명을 특채하였다.

- 윤영수 : 사무국 근무 (진국대 축산학과 졸업예정)
- 조동인 : 혈청검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학과 졸업예정)
- 권옥자 : 혈청검사 (전 가축위생연구소 근무)
- 박경애 : 혈청검사 (전 풍양농업협동조합 근무)

혈청검사요원은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약과에 파견근무를 하며 7월초부터 본회에서 실시하는 계군혈청검사 업무를 담당한다.